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개화의 남편』 고찰*

- 박물관을 통해 본 메이지의 근대적 모습 -

손순옥**
s-soonok@hanmail.net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2 우키요에를 통한 과거 회상 |
| 2. 일본 근대 박물관의 성립과 배경 | 4.3 미우라의 집과 내부구조 |
| 3. 『칼라일 박물관』 | 4.4 미우라의 아내 |
| 4. 『개화의 남편』속의 동판화와 우키요에 | 5. 결론 |
| 4.1 동판화속의 쓰키지 거류지 모습. | |

主題語: 박물관(a museum), 개화(advance), 메이지(meiji), 우키요에(ukiyo-e), 동판화(copperplate)

1. 서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이하 아쿠타가와로 칭함)는 메이지 25년(1892) 3월 1일, 도쿄시(東京市) 교바시쿠(京橋區) 이리후네초(入舟町)에서 태어났다. 아쿠타가와가 태어난 당시의 쓰키지 이리후네초는 외국인 거류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거리에 있는 일본인들의 집은 아쿠타가와와 집을 포함해서 불과 몇 채 안 될 정도로 이국적인 정취가 짙게 감도는 마을이었다. 일본 속의 서양이었던 쓰키지 거류지에는 파괴와 건설의 반복에 의해 서양가옥은 물론 공공건물이나 호텔, 근대 박물관¹⁾도 생겼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310)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박물관이 대상으로 삼는 영역은 지극히 넓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과 같이 역사 계통이나 자연 계통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문학관, 천문관, 더 나아가 동물원, 식물원,

아쿠타가와와 소설 군에는 1918년부터 1923년에 걸쳐 쓴 메이지 초기를 묘사하는 소위 개화기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 연대순으로 보면 개화의 살인(開花の殺人, 1918, 중앙공론), 개화의 남편(開化の良人, 1919, 中外), 무도회(舞踏會, 1920, 新潮) 오토미의 정조(お富の貞操, 1922, 개조) 하나(雛, 1923, 중앙공론)등이 있다. 이에 대해 오케야 히데카즈(桶谷秀和)는 ‘아쿠타가와에게 있어 개화는 서구의 세례(洗礼)를 받은 지식인을 주제로 하는 것이며 작자의 ‘문명 개화’에 대한 이미 부정적인 견해의 표출의 이해를 넘은 것에서 시작한 것은 아닐까?’²⁾라고 술회하고 있다. 시미즈 야스즈게(清水康次)는 ‘현대물, 즉 시대설정이 즉 아쿠타가와와 동시대에 놓여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개화기 즉 메이지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메이지의 다면성, 중층성에 대해서 아쿠타가와와 동시대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개화기물은 읽혀지는 것이다.’³⁾라고 서술했듯이 근대라는 것은 시대의 지식인과 시대를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언급해 둘 것은,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박물관을 보고 근대 메이지시대를 회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을 선택한 것임을 미리 말해 둔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개화의 남편』에 대한 고찰의 주목적이 두 작품 속에 그려진 박물관의 전시회를 보고 근대 개화의 메이지시대와 그 회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고찰에 앞서 우선 일본의 근대 박물관의 성립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⁴⁾이라는 작품과 아쿠타가와와 『개화의 남편』속에 등장하는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본 동판화와 우키요에를 통해, 메이지시대의 도교는 어떤 모습이며, 또한 회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수족관 등도 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가네토 야쓰시(2009.11)『박물관의 정치학』 일본근대 스펙트럼 9. 논형, p.21

2) 안도 쿠미(安藤公美)(2006.3)『『芥川竜之介』繪畫開化都市映畫』翰林書房, 海老井英次(1993.10)『文明開化』と大正の空無性』『日本近代文學』, p.128

3) 가네토 야쓰시(2009), 위 논문, p.128

4) 『カーライル博物館』은 1905년에 소세키가 런던에 체제하고 있을 때 보고 쓴 작품으로 사소설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칼라일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구 저택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칼라일의 구 저택은 지금 있는 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칼라일박물관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첼시에 하숙하고 있던 소세키는 몇 번이나 이 집을 방문했다. 귀국 후에 기행문 칼라일 박물관을 썼다.

2. 일본의 근대 박물관의 성립과 배경

일본의 근대 박물관은 메이지 초기에 유럽으로부터 유입되어 근대화를 추진하는 메이지 신정부에 의해 육성되어 갔다.⁵⁾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구미에 파견된 사절단이나 해외 유학생에 의해서 해외 박물관이 소개되었다.⁶⁾

일본은 박물관에 대해 견미사절단의 부사였던 무라가키 노리마사(村垣範正)는 “대통령은 여러 곳에서 받은 물건들을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그 내력을 기록해서 백물관⁷⁾에 보관한다.”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도 1866년에 간행한 그의 저서 『서양사정』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온 세상의 산물, 고물, 및 진물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보여 견문을 넓히도록 만든 것이다. 금수는 가죽을 벗겨 그 속에 물건을 채워 넣어 그 형태를 유지하니 무릇 살아있는 것을 보는 듯하다. 물고기와 벌레는 증류수에 담아 둔 것도 있다”라고 했다.⁸⁾

이처럼 막부 말기 무렵부터 일본인은 박물관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고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면서 박물관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1872년에 최초의 박람회인 유시마 성당에서 열렸다. 그 다음 이 박람회가 폐회된 후 야마시타몬(山下門) 내에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이것이 일본 최초의 박물관이다. 그 후 1878년에 제1회 일본권업박람회가 우에노에서 개최되었다. 1881년에는 제2회 일본권업박람회가 다시 우에노에서 열리고 박람회가 끝나자 박물관으로 사용했는데 야마시타몬 내에 있는 소장품들을 옮긴 뒤 1882년 3월 20일 본격적인 박물관으로 개장했다.⁹⁾

이시이 겐도(石井研堂)는 『명치사물기원(明治事物起源)』에서 “本邦의 박물관은 박람회와 동신일체(同身一體)의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듯이 일본에서 박물관의 형성은 구미각국처럼 단계적인 정치변화, 경제발전, 사회적 변동의 내용을 소화하지 않고 총체적인 서양 문물을 배우는 과정으로, 박람회를 식산흥업과 문명개화, 즉 전반적인 교육시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도입을 시도하였다.¹⁰⁾

이와 같이 일본에서 근대박물관은 어떤 특정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문학과 박물관을 연관 지은 작품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유일하

5) 가네토 야쓰시(2009.11)『박물관의 정치학』일본근대 스펙트럼 9, 논형, p.22

6) 가네토 야쓰시(2009), 위 논문, p.22

7) 여기서 말한 백물관이 박물관을 말한다.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 (2004.2)『일본의 근대풍경』그린비, p.399

8) 유모토 고이치(2004.2)『일본의 근대풍경』그린비, pp.399-401

9) 유모토 고이치(2004.2), 위의 책, pp.399-401

10) 차문성(2008.5)『근대박물관, 그 형성과 변천과정』한국학술정보, p.105

게 근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박물관은 작품제목 자체로써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과 아쿠타가와 의 『개화의 남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세키는 1900년도 초에 문부성의 지시로 영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3년간의 체류기간 동안 네 차례 칼라일 박물관을 방문했으며, 귀국 후 1905년에 영국에 간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짧은 글을 남겼다. 그 짧은 글 중의 하나가 『칼라일 박물관』이다. 두 작품은 시대와 연도와 장소는 좀 차이가 나지만, 유일하게 근대 박물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두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장소는, 영국에 있는 칼라일이라는 한 도시공간과 일본 동경 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이라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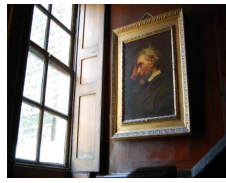
3. 칼라일 박물관

『칼라일 박물관』은 제목 그 자체로서 칼라일 박물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칼라일은 영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박물관으로 소개되고 있다. 칼라일 박물관은 그 당시 칼라일이 살았던 첼시라는 곳에 뜻있는 사람들의 발의로 그가 생전에 사용한 기물과 도구 책들을 모아, 이것을 각 방에 안배하여 언제든지 방문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칼라일 박물관에서 나는 짧은 연설자와 시골신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시골신사가 알고 보면 칼라일이다. 현재 작품 속에서는 박물관이 되어 버렸지만, 그 당시 칼라일이 살았던 집 주변의 정경, 집안구조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¹¹⁾



1) 카를라일博物館의正面. (칼라일 박물관의 정면)



2) A portrait painted by James Archer of Thomas Carlyle in 1869(1869년에 제임스아처가 그린 토마스 칼라일의 초상화)



3) Make sure you don't miss the study tucked away in the attic (눈에 띄지 않는 다락방의 서재에서 연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4) 庭から博物館の裏側を望む. (정원에서 박물관의 안쪽을 바라봄)
5) 建物の左下に見えているドアが勝手口(건물의 좌측아래에 보이는 문이 부엌)

11) 네이버 <http://www.nationaltrust.org.uk/carlyle-house/>

한편 텍스트 속의 칼라일의 집을 외부에서 본 정경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암자라고 하면 고색창연한 느낌이 있다. 적어도 소쇄하다든가 풍류라고 하는 의식이 따른다. 그러나 칼라일의 암자는 그런 고정 관념적 화사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¹²⁾

그 당시 칼라일의 집은 문명과 문화와 예술이 가장 발달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고정 관념적 화사한 이미지와 고색창연한 느낌이 있으며, 적어도 소쇄하다든가 풍류라고 하는 의식이 따랐을 것이라고 회상했지만, 직접 가보니 이제는 칼라일의 암자는 그런 고정 관념적 화사한 이미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위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라일의 집이 근대적인 화려함과 전통의 고색창연함이 어우러져 멋진 풍류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집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상상한 생각과는 너무나 빗나갔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실망도 컸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 문장에서 칼라일 집 외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길에서 곧장 문을 두드릴 만큼 길가에 바짝 세워진 4층 정사각형집이다. 튀어나온 곳도 들어간 곳도 없이 뚝뚝하게 곧추서있다. 마치 큰 공장 굴뚝 밑 등을 잘라 와서 거기에 천장을 덮고 창문을 붙인 듯 보인다.¹³⁾

나는 칼라일의 암자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갔지만, 과거의 칼라일의 암자는 나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과거 칼라일이 살았던 집의 모습은, 상상했던 예술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입체적인 외관의 모습이란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위에서 말한 그대로 그냥 공장을 하나 잘라 가져와서, 거기에다 천장만 덮은 꼴이다. 과거에는 정원도 있고 나무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뒤로 우뚝 솟은 건물들만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이 박물관은, 칼라일이 과거에 살았던 집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말 그대로 오래된 박물관이다. 이처럼 칼라일 박물관에는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서재만은 칼라일이 심혈을 기울여 자신이 직접 고안하고 만들었다. 칼라일은 처음 이 다락방을 보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다.

12) 庵りといふと物寂びた感じがある。少なくとも瀟洒とか風流とかいふ念と伴ふ。しかしカーライルの庵はそんな脂っこい華奢なものではない。『夏目漱石全集2巻』岩波書店(1965.1), p.35

13) 往来から直ちに戸が敞けるほどの道傍に建てられた四階造の真四角な家である。出張つた所も引き込んだ所もないのべつに真直に立っている。まるで大製造場の煙突の根本を切つてきてこれに天井を張つて窓をつけたやふに見える。위의 텍스트, p.35

4층에 닿았을 때는 망망한 느낌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뻐다.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함을 느꼈다. 여기는 다락방이다. 천장을 보니 좌우가 낮고 중앙이 우뚝 말갈기 같은 모양이다. 그 등줄기에 창문이 하나 유리를 번쩍거리며 있다. 이 다락방에 새어드는 광선은 모두 머리 위에서 곧장 들어온다. 그리고 그 머리 위는 유리 한 장을 사이로 전 세계로 통하는 넓은 하늘이다. 눈을 가로막는 것이란 티끌 한 점 없다.¹⁴⁾

칼라일은 처음 다락방을 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감정과 또한 다락방으로 새어 들어오는 광선과 바로 유리한 장 사이를 두고 머리가 맞닿을 것 같은, 넓은 하늘의 느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자유를 느낀다. 칼라일은 이 다락방을 보고 난 후, 자신의 취향대로 방을 고안하고 꾸며서 서재로 사용하였다. 서재가 완성 된 후의 모습을 보면

칼라일은 서재가 완성되자, 이 서재에 틀어박혀 외부와는 차단한 채 문학론 저술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이 서재도 집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래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도 소음에 민감했듯이, 칼라일도 온갖 도시의 소음과 교회의 종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그럼5)의 정원에서 바라보이는 부엌도, 옛날에는 뱃나무도 있고 포도나무, 호두나무도 있었다고 한다. 칼라일이 밀짚모자를 쓰고 잠옷 바람으로 담배를 피우던 것도, 텐트를 치고 책상을 들여놓고 저술을 하던 곳도, 이 정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무다운 나무와 풀다운 풀이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으리으리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칼라일의 집에서 가장 훌륭했던 곳은 4층의 서재다. 이 칼라일의 박물관 서재를 통해서, 칼라일이 살았던 그 시대의 집과 칼라일의 성격과 생활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다음은 아쿠타가와와 작품 『개화의 남편』 속의 박물관을 보고 근대 메이지시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14) 四階へ来た時は縹渺として何事とも知らず嬉しかつた。嬉しかつここは屋根裏である。天井を見ると左右は低く中央が高く馬の鬣の如き形をして其の一番高い背筋をとて硝子張りの明かり取りが着いて居る。此のアチックに漏れて来る光線は皆頭の上から眞つ直ぐに入る。さうして其の頭の上は硝子一枚を隔てゝ全世界に通ずる大空である。眼に遮るものは微塵もない。위의 텍스트, p.40

4. 『개화의 남편』 속의 동판화와 우키요에

4.1 동판화 속의 쓰키지 거류지의 모습

작품은 우에노의 어느 박물관의 마지막 전시실에서 나와 혼다 자작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 대화의 주제는 박물관 전시실 속의 동판화와 우키요에를 보다가 과거 메이지시대를 회상하게 된다. 마지막 전시실에서 본 혼다 자작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신사는 키가 흰칠한 어딘가 귀족풍의 냄새가 나는 노인으로 반듯한 검은 상하 신사복에 고급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중략) 불현 듯 4,5일 전 어느 회합자리에서 소개받은 혼다 자작임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그 자작이 교제를 싫어하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중략)망설였다. 그 때 혼다 자작이 (중략)보이며 “이거 오래 간만일세”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볍게 인사하였다.¹⁵⁾

위에서 언급한 외모의 추측으로 보아, 혼다 자작은 그 시대의 미남형에 속하며 단정한 성격을 지닌 소유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남들과 사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먼저 말을 걸어 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도의 복선을 깔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동판화를 보면서, 그 동판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동판화에 새겨져 있는, 쓰키지 그림의 도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실의 동판화를 보고, 나는 다음과 같이 상상하고 있다.

운모가 흘러가듯 파도를 새긴 도묘만, 갖가지 깃발이 나무끼는 증기선, 거리를 걸어가는 서양 남녀의 모습들, 그리고 서양풍 건물 위로 가지를 뻗고 있는 육중한 소나무들—그 곳에는 소재와 수법 면에서 일본과 서양이 절충된 메이지 초기 예술의 특유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쓰키지 거류지의 그림은 모란 꽃, 사자무늬를 그린 2인용 인력거나 구식으로 인화된 게이샤 사진이 서로가 개화를 자랑하던 시대를 회상시켜주기 때문에 한층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15) 紳士は背のすらりとした、どこか花車な所のある老人で、折目の正しい黒ずくめの洋服に、上品な山高帽をかぶっていた。(中略)すぐにそれが四五日前に、或会合の席上で紹介された本多子爵だと云ふ事に気がついた。が、近づきになつて間もない私も、子爵の交際嫌ひな性質は、以前からよく承知してゐたから(中略)側へ行つて挨拶したものかどうかを決しかねた。すると本多子爵は、(中略)「やあ」と柔しい声で会釈をした。『芥川竜之介全集3巻』岩波書店(1977.3), p.3

고 말했다.¹⁶⁾

고 하듯이 이 시기의 인상적인 회상은, 에도 정취와 메이지기의 문화와 문명이 한 곳에 어우러진 듯한 정경을 머릿속에 상상하게 해 준다. 나의 시선은 전통과 근대의 조화라는 식의 연출된 근대를 보았다. 이때는 서구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오던 시기라, 어떤 것이 개화인가를 분간할 수가 없을 만큼, 각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혼합되어, 각자의 개화를 자랑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제는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추억이 되어 버렸지만, 어쨌든 과거 동경의 변화했던 풍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4.2 우키요에를 통한 과거의 회상

혼다 자작은 요시토시의 우키요에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친구인 미우라를 회상하게 된다. 미우라의 외모와 집안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혼다 자작의 말을 빌리자면

요시토시의 기구고로처럼 피부가 하얗고 가름한 얼굴에 긴 머리 한 가운데를 양쪽으로 가르마한 자못 메이지초기의 문명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사였다.¹⁷⁾

미우라의 집은 부모님이 부자라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도 모르게 자산가가 되어, 은행에는 돈을 많이 맡겨두어 「직무상 이름뿐인 은행원(御役目だけ第×銀行へ出る)」이었다. 또한 「그의 집은 부모님 때부터 살아 온 료고쿠 핫폰구이(兩國百本杭) 근처의 저택을 멋진 서양풍 서재로 신축하여 꽤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親の代から住んでゐる兩國百本杭の近くの邸宅に、気の利いた西洋風の書齋を新築して、可成贅沢な暮しをしてゐました。)¹⁸⁾ 라고 그 당시에 혼다 자작이 본 미우라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이 미우라는 다이소 요시토시

16) 雲母のやうな波を刻んでゐる東京湾、いろいろな旗を翻した蒸汽船、往來を歩いて行く西洋の男女の姿、それから洋館の空に枝をのばしてゐる、広重めいた松の立木—そこには取材と手法とに共通した、一種の和洋折衷が、明治初期の藝術に特有な、美しい調和を示してゐた。この調和はそれ以来、永久に我々の藝術から失われた。いや、我々が生活する東京からも失われた。私が再び頷きながら、この築地居留地の圖は、獨り銅版画として興味があるばかりでなく、牡丹に唐獅子の繪を描いた相乗の人力車や、硝子取りの藝者の写真が開化を誇り合つた時代を思ひ出させるので、一層懐しみがあると云つた。위의 텍스트 p.4

17) 芳年の菊五郎のやうに、色の白い、細面の、長い髪をまん中から割つた、いかにも明治初期の文明が人間になつたやうな紳士でした。それが長い航海の間に、いつとなく私と懇意になつて、帰朝後も互に一週間とは訪問を絶やした事がないくらい、親しい仲になつたのです。위의 텍스트 p.6

18) 위의 텍스트, p.7

(大蘇芳年)의 우키요에에 나온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이다. 그렇다면 이 미우라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던 집과 그 내부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4.3 미우라의 집과 내부구조

미우라의 집과 내부 구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오카와 강이 내려다보이는 프랑스풍의 창문, 가장자리에 금칠을 한 하얀 천장, 빨간 모로코 가죽으로 된 의자나 소파, 벽에 걸려 있는 나폴레옹1세 초상화, 흑단나무를 조각해 만든 커다란 책장, 거울이 달린 대리석 난로 그리고 그 위에 살아생전 아버지가 애지중지 하던 소나무 분재---이 모든 것이 낡으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음침할 정도의 현란한, 달리 말하면 어딘가 박자가 안 맞는 협주곡을 연상하게 하는 역시 그 시대에 어울리는 서재였다.¹⁹⁾

이를테면, 미우라는 집이나 서재는 최고의 고품스럽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나, 그 때의 화려했던 서재가 현재는 낡아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서재로 변모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서재와 오래되고 낡은 지금의 서재가 서로 공유한다면, 그 당시의 메이지 시대의 그것과 잘 어울린다고 미우라는 생각하고 있다. 즉, 미우라는 그 시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미우라의 성향이 어떠한가?

사치스런 생활에 비해 유흥가를 드나들지도 않고, 신축된 서재에 틀어박혀 언제나 독서삼매경에 빠져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신체가 허약한 편이며, 당시의 유행론적인 풍조와는 반대로, 남보다 두 배 이상의 순수한 이상적 경향을 지녀, 언제나 고독했으며 모범적인 개화시대의 신사였다. 비유로써 미우라를「한 시대 이전의 정치적 몽상가와 닮은 점이 있다」²⁰⁾라고 했다. 「미우라는 언제나 나폴레옹 1세 아래에 떡 버티고 앉아 유우키 줄무늬 모양인지 뭔지 옷깃을 겹쳐 입고 위고의 『동방시집』을 읽고 있다」²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우라의 성향을 짐작할

19) 大川に臨んだ仏蘭西窓、縁に金を入れた白い天井、赤いモロッコ皮の椅子や長椅子、壁に懸かっているナポレオン一世の肖像画、彫刻のある黒檀の大きな書棚、鏡のついた大理石の暖炉、それからその上に載っている父親の遺愛の松の盆栽—すべてが或古い新しさを感じさせる、陰気な位けばかしい、もう一つ形容すれば、どこか調子の狂った楽器の音を思ひ出させる、やはりあの時代らしい書斎でした。위의 텍스트, p.7

20) 一時代前の政治的夢想家に似通つてゐる所があつたやうです。위의 텍스트, p.8

21) 三浦はいつもナポレオン一世の下に陣取りながら、結城揃いの何かの襟を重ねて、ユウゴオのオリエンタルでも読んで居よう。위의 텍스트, p.7

수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할 줄도 모르는 외골수이자 어쩌면 시대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혹은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증거로써 두 친구의 성격이 비교 되고 있다. 자작은 프랑스 유학파답게 근대를 고수하는가 하면, 미우라는 프랑스 유학파이면서도 완전히 근대화 되지 않은, 옛날 에도기와 메이지기가 절충된 시대를 고수한다. 둘은 친한 친구이면서도 정반대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미우라의 아내는 어떤 여성이며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 가를 살펴보자.

4.4 미우라의 아내

미우라는 비록 집과 서재에 대해서는 사치를 부렸지만, 프랑스 유학파답지 않게 본래 자신의 신념 속에는, 언제나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성품을 지닌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유치한 꿈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것에 목숨을 바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네.」²²⁾라고 말했듯이 결혼 문제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선택하고자 했다. 「나는 사랑이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네.」²³⁾에서도 엿보이듯이 미우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선택하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대는 비록 개화가 된 시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첩이라는 제도는 일본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미우라는 재력이 있어 첩을 둘 수 있다고 친구인 자작으로부터 권유받았지만, 미우라는 사랑만이 있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만 주장했다. 미우라가 첫눈에 반한 여성은, 아버지가 골동품 가게를 하고 있는 집의 딸이다. 우연히 미우라가 절 경내에서 보게 된 여성이다. 미우라는 이 여성과 빨리 결혼하기를 서둘렀다. 자작의 말을 빌리면 미우라의 아내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묘사되고 있다.

몸집이 작고 아담한 탓에 누가 보아도 두세 살은 젊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눈썹은 짙으며 혈색은 밝고 둥근 얼굴--²⁴⁾

이 문장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미우라가 신여성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만났던 곳도 엄숙한 절 경내이며, 더구나 아내의 아버지가 골동품 가게를 한다는 것에서도 신여성이 아닌 전통미가 있는 이런 여성을 원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다가 덧붙이자면 입고 있던 옷도 「고대 나비와 새 모양이 새겨져 있는 옷에 갖가지 색실로 무늬를 넣은 허리띠를

22) たとひ子供じみた夢にしても、信ずる所に殉ずるのだから、僕はそれで本望だ。위의 텍스트, p.9

23) 僕は愛のない結婚はしたくない。위의 텍스트, p.9

24) 小柄でもあつたせいか、誰の眼にも二つ三つ若く見えたのに相違ありません。それが眉の濃い、血色鮮な丸顔-위의 텍스트, p.13

매고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²⁵⁾고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자작이 교젠을 보러 갔을 때 본 미우라의 아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 모습은 장미꽃을 트레머리에 꽂고 수수한 색깔인 장식용 옷깃 위로 하얗게 늘어진 턱을 편안히 받치고 있었습니다.²⁶⁾

이와 같이 미우라는 자신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성은 근대의 모습을 지닌 그런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숙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닌 그런 여성을 원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폴레옹의 초상화 대신에 자신의 아내의 초상화를 걸어 둘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친구인 자작의 생각에도 「미우라가 이제까지 꿈꾸어 왔던 사랑의 상대자로서 제가 상상했던 신시대 부인과 비교해본다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²⁷⁾ 라는 말에서도 충분히 미우라가 신여성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미우라의 착각이었다. 외모와는 달리 미우라 부인의 발랄한 재치는 친구인 자작과 미우라를 감탄시켰다. 자작은 「부인, 부인과 같은 분은 실은 일본보다 프랑스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겁니다.»²⁸⁾라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상반한 것 이상으로 발랄한 것에 충격적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근대가 왔다고 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관습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편이나, 결혼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성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결국 파정에 이른다.

5. 결론

지금까지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에서는 칼라일이 예전에 자신의 아내와 살았던 그 주변의 풍경과 근대 서양풍의 서재를 소개했다. 내용 속에서 연애 관계에 대해서는

25) 古代蝶鳥の模様が何かに繻珍の帯をしめたのが、當時の言を使つて形容すれば、いかにも高等な感じを与へてみました. 위의 텍스트, p.13

26) 그것이薔薇かと思はれる花を束髪にさして、地味な色の半襟の上に、白い二重顎を休めてみました. 위의 텍스트, p.14

27) 三浦の愛の相手として、私が想像に描いてみた新夫人に比べると、どこかその感じにそぐわない所があるのです. 위의 텍스트, p.13

28) 奥さん、あなたのやうな方は實際日本より、仏蘭西にでも御生れになればよかつたのです. 위의 텍스트, p.13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개화의 남편』에서는 두 주인공이 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동판화와 그림을 구경하면서 과거 도쿄의 모습과 그 시대의 친구의 연애를 통해서 주인공의 결혼관과 연애관을 통해서 근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회상하고 있다.

그 당시 도쿄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쓰키지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부근이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공원이나 극장이 들어서 지식인들이 문화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간으로 인해, 남녀 간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역시 개화시대 작품들의 대부분이 연애물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우키요에를 보면서, 과거 미우라와 그의 아내의 연애와 결혼, 불륜, 이혼하기까지의 연애물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작품도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공 미우라 역시도 부모의 영향으로 근대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근대화된 시대보다는 과거의 도쿄의 파괴되지 않은, 그 자체로의 풍경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국 근대라는 것이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즉 아쿠타가와도 어릴 때부터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쓰키지 거류지에 산 적이 있어, 그 부근이 메이지로 인해 파괴와 건설을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다. 때문에 그 시대의 풍경을 많이 그리워했을 것이다. 아쿠타가와와는 위와 같은 배경이나 환경으로 인해, 메이지 초기, 즉 개화기의 화양절충 풍속이나 분위기를 재현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텍스트(1977)『芥川龍之介全集』3卷, 岩波書店
 텍스트(1987)『夏目漱石全集』2卷, 岩波書店
 윤상현(2010)『아쿠타가와 류노스케전집 II』개화시대의 남편』제이앤씨
 가네토 야쓰시(2009)『박물관의 정치학』일본근대 스펙트럼 9, 논형
 안도쿠미(安藤公美)(2006)『芥川龍之介』繪畫開化都市映畫』翰林書房
 海老井英次(1993)『文明開化』と大正の空無性』『日本近代文學』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2004.2)『일본의 근대풍경』그린비
 차문성(2008)『『근대박물관, 그 형성과 변천과정』한국학술정보
 네이버 <http://www.nationaltrust.org.uk/carlyles-house/>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1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要旨>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개화의 남편』 고찰

- 박물관을 통해 본 메이지의 근대적 모습 -

나쓰메 소세키의 『칼라일 박물관』을 통해서 는 근대의 칼라일이 자신의 아내와 살았던 집과 내부의 서재와 그 주변의 풍경에 대해 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아쿠타가와 의 『개화의 남편』에 등장하는 박물관에서는 동판화를 통해 첫째는 과거의 도쿄의 혼합된 근대의 모습 회상. 둘째는 우키요에를 통해 그 시대의 친구의 연애를 통해서 주인공의 결혼관과 연애관을 통해서 근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회상하고 있다. 그 당시 도쿄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쓰키지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부근이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공원이나 극장이 들어서 지식인들이 문화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간으로 인해 남녀 간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아쿠타가와도 어릴 때부터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쓰키지 거류지에 산 적이 있어 그 부근이 메이지로 인해 파괴와 건설을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다. 때문에 그 시대의 풍경을 많이 그리워했을 것이다. 아쿠타가와 는 위와 같은 배경이나 환경으로 인해 메이지 초기, 즉 개화기의 화양절충 풍속이나 분위기를 재현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다.

A study on “kaikano husband” of Akutagawa Ryunosuke and “Kalailmuseum” of Natume soseki

- through museum in the works in the modern aspect of meizi period -

Through "Kalail museum" of Natume Soseki, we can understand for study library in his study room and his house lived with his wife of Carlyle himself and was written to surrounded landscape and in museum appeared on the stage in husband of civilization by the copperplate print and in first, it recollects the mixed modern ages of mixed Tokyo in the past. in second, he recollects how he thinks for modern ages thru marriage and love by marriage of protegonist thru love. At that time, the foreigners came in Tokyo and build house and live in squeue and so it changed as the new city and appeared public park and theater and it means that the intellectuals make a positioning to receive the space to spend the cultural living, and the erotic love among the male and female naturally come to the male and female. Akutagawa had also lived in Sukiji living place where the foreign persons lived, from his young season while his young period and therefore, he comes to look at things repeated destroy and reconstruction. Therefore, he may look back the landscape a lot for a landscape at that time. As that background and environment as above, in beginning of Mage by the above background or environment, we may look at to wish to carry out again negotiating customs of the flowering time.